

학생참여중심의 효율적 활동 기대

전북교육청, 자유학년제 운영 협의회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자유학년(기)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 1학기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2019년 자유학년(기)제 운영학교는 모두 209개교이며, 이 중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29개교

로 지속학교 17곳과 신규학교 12곳이다.

신규학교는 군산대성중, 함열중, 전북동화중, 봉남중, 용지중, 동향중, 진성중, 진안중, 적상중, 천천중, 성수중, 지사중 등이다.

주요 내용은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상호 컨설팅, 학교

별 특색있는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 수립방안, 학생참여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사례나눔과 계획 수립, 자유학년(기) 운영과정의 예산 애로사항 해결방안 나눔 등이다.

학생들이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성과 인성뿐 아니라 감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생참여 중심 수업사례 나눔을 통해 자유학년(기)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단위 교육공동체의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자유학년(기)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공정 감사 실현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감사담당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한 감사 실현을 위한 2019년도 감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30~31일 이틀간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14개 교육지원청 총무(감사)담당 및 감사담당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물품·용역 및 시설 계약업무의 이해 ▲사립학교(학교법인)의 이해 ▲시설공사 감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이다.

이와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감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분임 토의도 진행됐다.

분임토의 주제는 크게 사립유치원 감사 실시 방안, 종합·재무감사 개선 방안, 특정감사(민원분야) 개선 방안 등 3개 분야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개선 방안 및 해결책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통과 대화의 기술을 주제로 한 명사특강과 미륵사지 탐방 등을 통해 감사담당공무원들에게 힐링의 시간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감사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바탕으로 자체감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추진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이 동계 방학 중 학생들을 해외 기업에 파견했다.

전북대 IT융복합사업단 학생들, 日 비과과 최고 기업서 연수

전공 실무 교육부터 언어·문화까지 배우는 기회 가져

전북대 CK-1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단장 송철규)은 동계 방학 중 학생들을 해외 기업에 파견해 전공 실무 교육뿐 아니라 그 나라 언어 및 문화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 김영훈 학생 등 17명은 지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요코하마에 위치한 일본 굴지의 비과과 검사 전문 회사인 재팬 프로브(Japan Probe) 기업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초음파레벨 강습과 실기체험, 랩뷰(Lab view) 기초강연을 중심으로 한 수

업 등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을 통해 일본어 강좌도 진행해 짧은 시간에 질 높은 언어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후지산과 하코네 온천 견학, 요코하마 역사 및 문화탐방, 아시아 맥주 공장 견학 등의 문화 일정도 넣어 전공 학습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도 병행했다.

김영훈 학생(전자공학부 2년)은 "전공과 밀접한 분야인 비과과 검사와 관련된 일본 유명 회사를 견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이러한 좋은 기회

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 지원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IT융복합시스템인력양성사업단은 매학기 방학에 학생들을 세계 굴지의 기업이나 연구소에 보내 전공 교육과 해당 국가와 지역의 문화까지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은 일본 비과과 전문기업 뿐 아니라 미국 의료수술 영상회사, MIT나 하버드 의대 등 세계 최고 대학의 연구소 등을 찾아 최정상 연구 현장을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19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내달 4일부터 15주간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평생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오늘부터

25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과정은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보강주 포함) 15주간 운영할 계획이며, 일반과정(면접스피치 이

론, 실기 외 7개)과 문화예술과정(문인수화 외 10개), 자격증과정(고품격스피치 외 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전주교육대학교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현직교사 및 재학생, 재등록자,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발전기금 고액기부자 등의 수강료를 10%

~50%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총장은 "평생 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증가시켜 자기 계발과 실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전하며, "많은 수강생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원에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가 31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시·군체육회와 '2019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북 대도약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

도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지난 31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51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8년도 감사결과, 임원 변동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또 2018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 안을 심의·의결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개회에 앞서 최근 전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미래형 상용차산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

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참석 대의원들의 자축의 박수를 끌어내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선 새만금국제공항 등이 예타면제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는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인의 자존심을 높이고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도민 체질강화에 체육인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설 앞두고 학생안전관리 만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설연휴를 앞두고 학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연휴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대책에는 귀향·대설·한파 등 설연휴 기간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상황관리, 보고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생업종사, 가족해체 등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안전

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관길 사고예방 행동요령 등과 같은 야외활동 관련 유의사항과 해외여행시 감염병 관련 유의사항 등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보고용 전용메일(jel119@jedu.kr)이나 학생안전관리지원단(063-239-3119)으로 즉시 보고하는 24시간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설연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